

설경구·전도연, 명품 연기로 전하는 '위로'

세월호 아픔 다른 영화 '생일' 다음 달 3일 개봉

전도연 "시나리오 보고 많이 울었다 슬픔을 나누는 것이 큰 힘"

설경구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 위로의 물결 시작됐으면"

세월호 아픔을 다룬 영화 '생일'이 다음 달 3일 관객을 찾는다. 2016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난 아들의 생일날, 엄마와 아빠, 동생 그리고 남은 이들이 아들을 추억하며 서로 아픔을 보듬는 이야기다.

6일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전도연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많이 울었다"면서 "제가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촬영하면서 함께 기억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도연은 아들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엄마 순남역을 맡았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가 남편과 함께 아들의 생일모임을 하면서 비로소 아들을 떠나보낸다.

전도연은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부담이 커서 고사했다"면서 "그러나 시나리오가 그런 부담감을 뛰어넘을 만큼 좋았다.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제가 다가가던 것처럼, 관객들도



배우 설경구(왼쪽)와 전도연이 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생일'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영화에 다가가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설경구는 특수한 사정으로 외국에 있다가 뒤늦게 가족에 돌아온 아빠 정일을 연기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버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품고 살던 그는 주변의 권유로 아들의 생일을 준비한다.

설경구는 "다른 영화 촬영 중에 시나리오를 받았다. 스케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시나리오를 읽은 뒤에는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다"며 "왜 벌써 영화로 만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왜 그동안 안 만들어졌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답답하지만, 힘 있는 이야기로, 영화를 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가올 것"이라며 "이 작품이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작은 물결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전설 커플'로 불리는 전도연과 설경구는 영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2001) 이후 18년 만에 한 작품에서 재회했다.

설경구는 전도연에 대해 "18년 동안 변함 없다. 희한하게 너무 똑같다"고 말했고, 전도연은 설경구를 향해 "멋있게 나아가 들었다"고 화답했다.

이 작품은 이창동 감독의 '밀양' '시'에서 연출부로 활동한 이종원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이 감독은 친구를 떠나보낸 안산의 친구들과 또래 세대의 만남을 다룬 다큐멘터리 '친구들: 숨어있는 슬픔'을 연출했고,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

해 '세월호 세대와 함께 상처를 치유하다'라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끊임없이 관심을 지닌 감독의 진심이 담긴 영화다.

그는 "유가족들이 아이들 생일이 돌아오면 무척 힘들어하셨고, 함께 모여서 아이 생일모임을 하셨다"면서 "그 모임을 보면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를 써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었고, 최종 편집본을 완성하기 전에 안산에서 유가족 대상 시사회도 열었다.

이 감독은 "시사회 때 가족분들로부터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저의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지 않게, 한결같은 물려서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PD수첩' 방용훈 부인 사망 재조명 '들쭉'

음성메시지·유서 내용 공개 재조사 요청 국민청원 쇄도

방용훈 코리아호텔 사장 부인 사망 사건을 재조명한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이 방송 다음 날인 6일까지 주목받고 있다.

'PD수첩'은 전날 방송에서 방용훈 조선일보 사장의 친동생으로 조선일보 주주이기도 한 방용훈 사장의 부인 이미란 씨가 2016년 9월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서는 고인이 생전 친오빠에게 "너 무 죄송해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라고 말한 음성 메시지가 공개됐다.

또 알려진 대로 그가 남긴 유서에는 방 사장의 학대 행위와 자녀들에 의해 사설 구급차에 실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내용 등

이 포함됐다.

특히 고인이 "3개월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학대하느냐는 이유를 들어야... 얘기하려고 올라갔다 무섭게 소리 지르고 욕하기에 또 맞을까 봐 그 길로 도망치듯 지하실로 내려왔다"고 쓴 내용 등은 폭행과 감금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제작진은 강조했다.

이 씨 친정 가족들은 이 씨 자녀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동존속상해 대신 강요죄를 적용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작진은 검찰의 바꾸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기준 6.2%를 기록해 'PD수첩' 전주 방송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클립 영상 조회 수는 33만 3천뷰를 넘겼다.

또 이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사망의 학대 행위와 자녀들에 의해 사설 구급차에 실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내용 등



장윤정, 4년만의 8집 공개... '트로트 확장성 보여줘'

'트로트퀸' 장윤정이 8일 낮 12시 정규 8집을 낸다고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6일 밝혔다.

8집은 2015년 7집 '여자(女子)' 이후 4년만의 정규 앨범으로 장윤정의 정체성인 트로트부터 록 발라드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담아 트로트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장윤정은 지난 3일 방송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 수록곡 '세월아'를 공개했으며, 5일 또 다른 수록곡 '사랑 참'의 티저 영상을 선보였다.

'사랑 참'은 사랑을 잃기도 지키기도 어렵다고 노래하는 감성 발라드로, 호소력 짙은 음색이 돋보인다. 1분여 티저 영상은 '보이나오'라고 터져 나오는 외마디 고음이 귀를 사로잡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이 오나 봄(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브레드 이발소(재)	10 생생정보 스페셜	25 뽀빠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삼사의 모험 55 슬픔 때 사랑한다(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워워뽀뽀 로그인 코리아(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2019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함평>	00 또봇 V 15 타오르자마 버스터 2 30 영상앨범 산(재)	1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40 3.1운동 100주년 기획 한국인의 밥상	50 원소집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경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왜그래 풍상씨(재)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현순>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습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봄이 오나 봄	00 빅이슈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킬빌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두부 세발나물샐러드와 참나물 청포묵무침>
05:30 통일 미리보기 <워동네 스포츠>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세상의 모든 시간 터키 4부 흑해의 알프스 폰투스>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13:40 다큐 시선 14:30 엠버와 함께 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4:4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5:00 마사와 곰스페셜 15:15 출동! 피자마삼총사 15: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6:15 출동! 슈퍼왕스
07: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07:30 출동! 슈퍼왕스	
08:00 땀방울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알라라 뿌우	
09:00 두다다콩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6:30 알라라 뿌우(재)	
16:45 땀방울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콩	
17:30 뽀뽀뽀 뿌로로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1~5	
19:00 우리는 비트몬스터	
19:30 EBS 뉴스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극한 겨울 터키4부 희화낙! 이스탄불>	
21:30 한국기행 <오지, 봄이 오지 4부 어디만큼 왔나>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7일 (음 2월 1일 癸卯)	
子	36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 될 것이다. 48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우연히 협조자가 나타나서 물고를 뜨는 형상이다. 60년생 전반적으로 대풍수이다. 72년생 부족하면 반드시 채워 줘야만 하느니라. 84년생 중요한 일을 이룰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7, 52	午	42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따라 없다. 54년생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66년생 나타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 예의 주시하라. 78년생 시간의 안배를 잘 해야 실행에 차질이 없다. 90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85, 23
丑	37년생 객관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할 때다. 49년생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다. 61년생 순리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 73년생 폐단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85년생 총동원 되어야 성사를 기 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1, 33	未	43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처리해야 할 때이다. 55년생 비밀은 끝까지 유지하여야만 후유증이 없다. 67년생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니 체면에 신경을 써라. 79년생 현상 감각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91년생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2, 42
寅	38년생 정면으로 승부를 내야한다. 50년생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부터 가능해 볼 일이다. 62년생 희귀한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니 놓치지 마라. 74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86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만 할 국량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91, 81	申	44년생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56년생 상대의 말을 경청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68년생 이상적인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80년생 의외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92년생 방법만 달리 해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3, 08
卯	39년생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낫다. 51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적절이 시급하니 무리주 말고 즉시 실행 해야만 한다. 63년생 상호간에 쉽게 통할 수 있느니라. 75년생 지체 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87년생 상호간에 연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7, 91	酉	45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57년생 피하는 일은 잘 풀릴 것이다. 69년생 제일 처음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라. 81년생 차선책을 강구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93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 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 행운의 숫자 : 53, 60
辰	40년생 다수인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2년생 예상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64년생 의도해 왔던 바를 향해 양호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입 지이다. 76년생 거친 풍랑 위의 일엽편주에 비유할 만하다. 88년생 길잡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5, 99	戌	34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편이나 안심하기에는 이른다. 46년생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성공이니라. 58년생 숨은 속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느니라. 70년생 파헤치는 것 보다는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옳다. 82년생 적용이 적절 하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로다. 행운의 숫자 : 07, 06
巳	41년생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53년생 거주 장소라면 두 말 없이 청산하라. 65년생 먼저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할 일이다. 77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 가 건조해질 수도 있다. 89년생 끝도 없이 계속 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0, 22	亥	35년생 노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47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진수하니 풍어를 기억하라. 59년생 비고 되면서 진가가 드러나리라. 71년생 발군의 기량을 발휘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83년생 인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2, 92